

2018년 12월 0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미·중 무역분쟁 합의에 힘입어 상승 미국, 대 중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실무 협상단 구성

무역분쟁 실무 협상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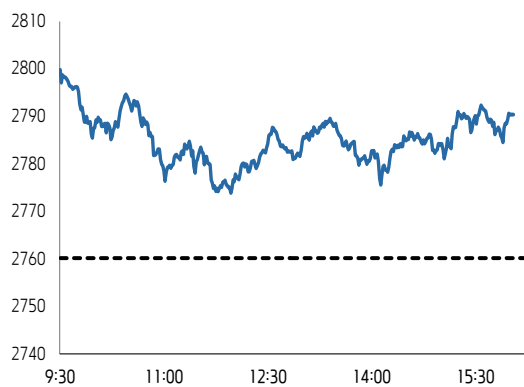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힘입어 상승 출발. 그러나 1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과 미국 협상단의 구체화된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출회되며 상승 축소. 다만, 트럼프와 므누신 재무장관등의 긍정적인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는 유지하며 마감(다우 +1.13, 나스닥 +1.51%, S&P500 +1.09%, 러셀 2000 +1.02%)

미·중 무역분쟁이 90일 휴전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 이후 12월 12일~15일 진행 되는 미·중 실무진 협상에 대해 초점이 옮겨진 양상. 미 증시가 장중 상승분을 반납했던 요인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대 중국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이후 중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부각. 한편,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정책국장과 로스 미 상무장관 등 대 중국 강경파가 이번 실무 협상에서 전면에서 나설 수 있다는 점 또한 부각. 이 소식이 알려지자 향후 협상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분명한 것은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 또한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 되었고, 향후 협상 타결을 자신한다” 라고 언급. 더불어 최근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 농민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국은 즉각적인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라고 언급하며 협상 타결을 강조.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의 진전이 기대 된다” 라고 주장

한편, 이번 협상에 대해 투자은행들의 분석도 엇갈린 모습. 피델리티는 “휴전으로 영구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중국의 소비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 JP 모건도 “2019년 1분기 무역전쟁 심화 견해를 축소” 한다고 발표. 더불어 “중국 시장 심리 회복은 4~5주 동안 지속 될 것”이 라고 주장. 반면, 골드만삭스는 “휴전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관세 해소로 이어질 실무 협상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라고 언급. 노무라 또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라고 주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31.93	+1.67	홍콩항셱	27,182.04	+2.55
KOSDAQ	709.46	+1.97	영국	7,062.41	+1.18
DOW	25,826.43	+1.13	독일	11,465.46	+1.85
NASDAQ	7,441.51	+1.51	프랑스	5,053.98	+1.00
S&P 500	2,790.37	+1.09	스페인	9,179.60	+1.13
상하이종합	2,654.80	+2.57	그리스	659.72	+4.68
일본	22,574.76	+1.00	이탈리아	19,622.36	+2.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아마존 급등

보잉(+3.81%) 등 비행기 제조업체와 캐터필라(+2.42%), 디어(+4.73%) 등 기계업종, 그리고 마이크론(+3.81%), NVIDIA(+4.04%), AMAT(+2.84%) 등 반도체 업종은 무역분쟁 관련 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했다. GM(+1.32%), 포드(+2.02%) 등 자동차 업종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 40%를 없애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엑손모빌(+2.16%), 코노코필립스(+4.43%)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애플(+3.49%)은 무역분쟁 관련 협상에 힘입어 트럼프가 최근 언급했던 관세 부과 이슈에서 멀어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했다. 더불어 AirPods가 내년에 출하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아마존(+4.86%)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호주 중앙은행에 성과 안정성이 부각되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했다. 반면, 버라이즌(-3.55%)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내년에 5G 스마트폰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6.58%)는 모바일용 다이블로를 출시했으나 혹평이 이어져 급락했다. 코카콜라(-1.41%), 펩시코(-2.43%) 등 방어주는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35%	대형 가치주 ETF	+0.83%
에너지섹터 ETF	+3.54%	중형 가치주 ETF	+0.91%
소매업체 ETF	+1.36%	소형 가치주 ETF	+0.64%
금융섹터 ETF	+0.63%	배당주 ETF	+0.86%
기술섹터 ETF	+2.21%	변동성 ETF	-5.77%
소셜 미디어업체 ETF	+2.11%	대형 성장주 ETF	+1.75%
인터넷업체 ETF	+1.84%	중형 성장주 ETF	+1.46%
리츠업체 ETF	+0.47%	소형 성장주 ETF	+1.23%
주택건설업체 ETF	+1.58%	신흥국 고배당 ETF	+2.20%
바이오섹터 ETF	+1.1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87%
헬스케어 ETF	-0.48%	하이일드 ETF	+0.71%
곡물 ETF	+0.46%	물가연동채 ETF	+0.19%
반도체 ETF	+1.77%	Long/short ETF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7.52	+2.28%	+4.08%	-0.69%
소재	347.07	+1.75%	+2.96%	+2.81%
산업재	614.95	+1.16%	+4.38%	+3.19%
경기소비재	872.44	+2.21%	+6.03%	+2.15%
필수소비재	575.92	-0.09%	+2.72%	+1.42%
헬스케어	1,101.62	+0.44%	+5.37%	+6.61%
금융	449.20	+0.47%	+2.20%	+2.58%
IT	1,215.03	+2.11%	+5.98%	+0.67%
커뮤니케이션	149.98	+0.08%	+3.60%	+0.08%
유틸리티	283.19	+0.88%	+3.05%	+5.06%
부동산	209.64	+0.36%	+2.91%	+6.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견조한 흐름 지속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2.77% MSCI 신흥 지수도 2.0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946 계약) 했으나, 0.10pt 하락한 276.3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8.3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합의에도 불구하고 12~15 일 있을 실무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을 주며 장중 상승폭을 축소 했다. 이는 전일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힘입어 상승한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순에 있을 미-중 실무 협상은 구체화된 내용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정을 공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수출의 선행지수 중 하나인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가 개선되었다(57.7→59.3). 특히 신규주문이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 향후 한국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감익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이익 전망치가 개선될 수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 미 연준위원들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금리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 영향으로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중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차익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나, 중국 증시가 반등을 이어간다면 재차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11 월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7.7) 보다 개선된 59.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57.4→62.1), 재고지수(50.7→52.9), 고용지수(56.8→58.4) 등이 개선되었다.

10 월 미국 건설지출은 시장 예상치(mom +0.3%)를 하회한 전월 대비 0.1% 감소 했다. 민간 지출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으나, 공공부문은 소폭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캐나다 앨버타주가 파이프라인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감산을 발표한 점, 그리고 G20 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감산을 시사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이에 힘입어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등 했다.

달러화는 장 초반 무역분쟁 협상 타결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크게 약세를 보이며 출발 했다. 그러나 실무 협상에 대한 부담, 제조업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낙폭이 축소되었다. 더불어 파운드화가 다음주 영국의회에서 브렉시트 협상안 관련 표결을 앞두고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약세폭 축소 요인이었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협상 타결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식시장 강세 및 제조업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다. 그러나 연준위원들이 발언을 통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동결을 주장하자 하락 전환해 10년물 국채금리는 3.0% 미만으로 하락했다. 웰스 연준 부의장은 “연준 중립금리 근접하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맞다” 라고 주장 했다. 클라리다 연준이사는 “현재 미국 경제와 전망은 견조하다” 라고 주장 했으며 “저물가 저기에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언급 했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어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 라고 주장 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물가는 매력적이며, 중립금리에 가깝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중요하다”라고 언급 하며 금리인상 반대를 시사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무역분쟁 완화 및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4% 상승한 반면 철근은 0.30%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95	+3.97	+2.56	Dollar Index	96.996	-0.28	-0.08
브렌트유	61.69	+3.75	+1.87	EUR/USD	1.1348	+0.27	+0.18
금	1,239.60	+1.11	+0.89	USD/JPY	113.62	+0.04	+0.04
은	14.499	+1.98	+1.09	GBP/USD	1.2729	-0.16	-0.76
알루미늄	1,974.00	+0.82	+1.15	USD/CHF	0.9982	+0.03	-0.01
전기동	6,295.00	+1.57	+1.71	AUD/USD	0.7353	+0.64	+1.83
아연	2,583.00	+1.61	+3.86	USD/CAD	1.3209	-0.62	-0.35
옥수수	382.00	+1.13	+3.80	USD/BRL	3.8443	-0.59	-2.24
밀	521.25	+1.07	+1.41	USD/CNH	6.8762	-1.06	-1.07
대두	905.75	+1.23	+5.04	USD/KRW	1110.70	-0.94	-1.61
커피	107.80	+0.23	-2.71	USD/KRW NDF1M	1108.36	-1.00	-1.8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70	-1.82	-8.38	스페인	1.490	-1.00	-7.00
한국	2.127	+1.70	-4.30	포르투갈	1.800	-2.30	-8.20
일본	0.086	-0.60	-0.40	그리스	4.186	-6.20	-18.70
독일	0.306	-0.70	-5.50	이탈리아	3.143	-6.70	-12.30